

2026. 07. 20 (22:00 KST 기준) | 야간 글로벌 시황 브리핑

퍼펙트 스톰: 글로벌 리스크 오프(Risk-Off)

AI 밸류체인 쇼크와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
사상 최고의 변동성 장세

[FICC]

[Global Equities]

[Tech Supply Chain]

3 Key Market Drivers: 오늘의 시장을 지배한 핵심 변수



코스피 투매
(KOSPI Crash)

**KOSPI -4.46%,
KOSDAQ -5.33%**

양 시장 '매도 사이드카' 발동.
코스피 6,500선 위협.

외국인 112.9만 주 순매수에도 불구하고,
기관의 대규모 투매(146.9만 주
순매도)가 시장 하락을 압도.



반도체/AI 리스크
(Tech Supply
Chain Risk)

NASDAQ -1.40%

중국 AI '키미 K3' 등장과 미국
빅테크 실적 경계감이 맞물리며
나스닥 및 韓 반도체 밸류체인
전반에 '찬바람'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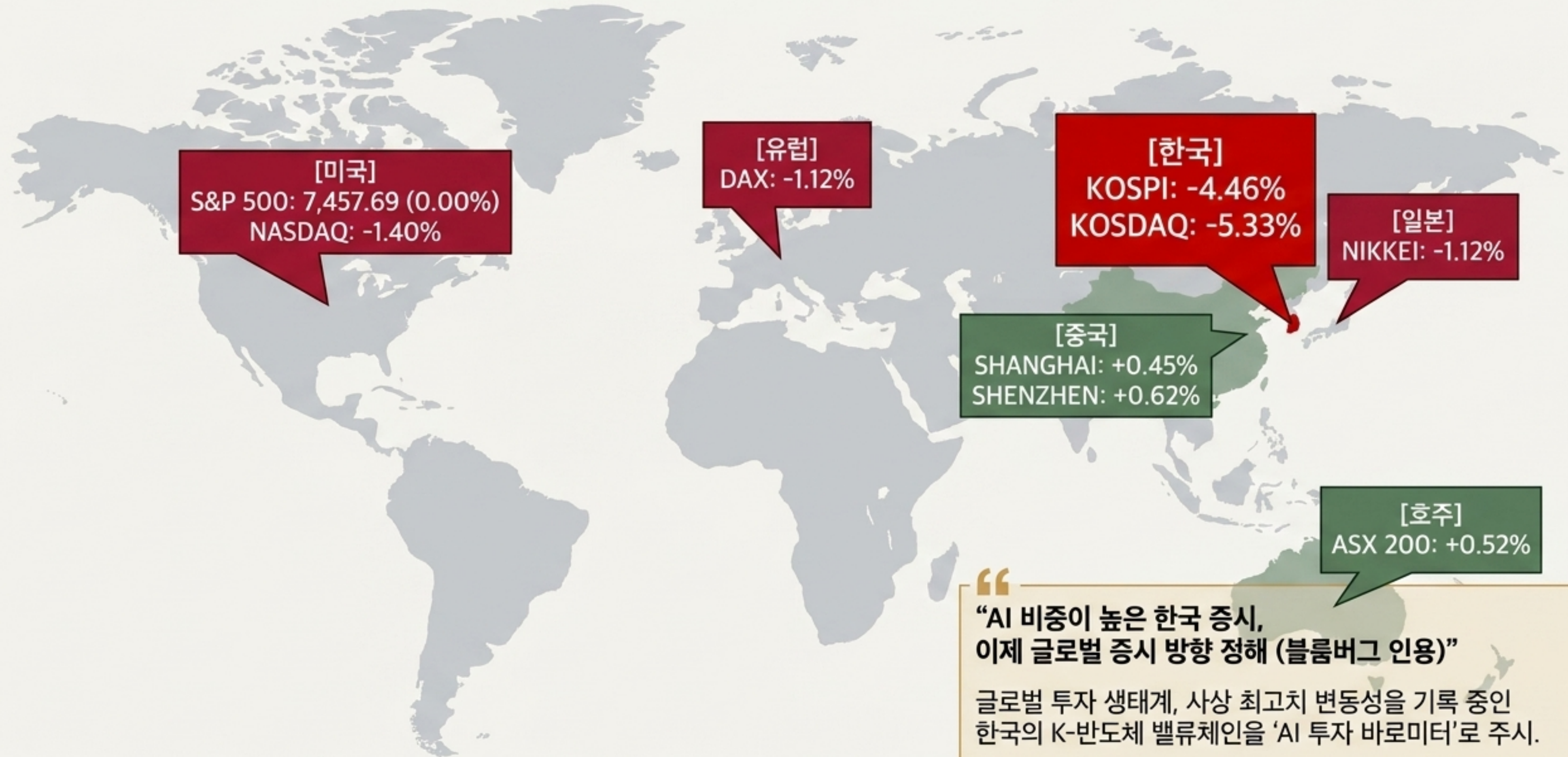


매파적 FICC
(Hawkish Macro
& Geopolitics)

**WTI \$82.35 /
US 10Y 4.574%**

미국-이란 전면전 우려로
유가 90달러 돌파 압력 심화.
FOMC 매파 기조 재부각으로
국채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 우려
점화.

Global Market Snapshot: 엇갈린 아시아, 위축된 서방 시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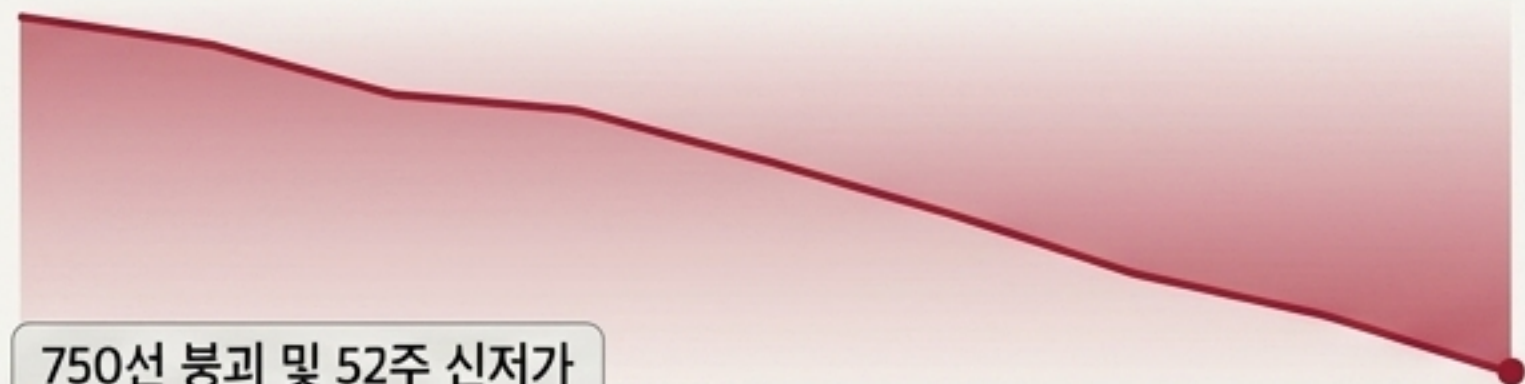
KOSPI & KOSDAQ: 제한절 연휴 파고와 투매의 늪

KOSPI: 6,516.27 ▼ 304.33pt (-4.46%)



주요국 증시 중 한 달 수익률 최하위

KOSDAQ: 749.64 ▼ 42.20pt (-5.33%)



750선 붕괴 및 52주 신저가

Status: 2거래일째 양 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.

투자자별 수급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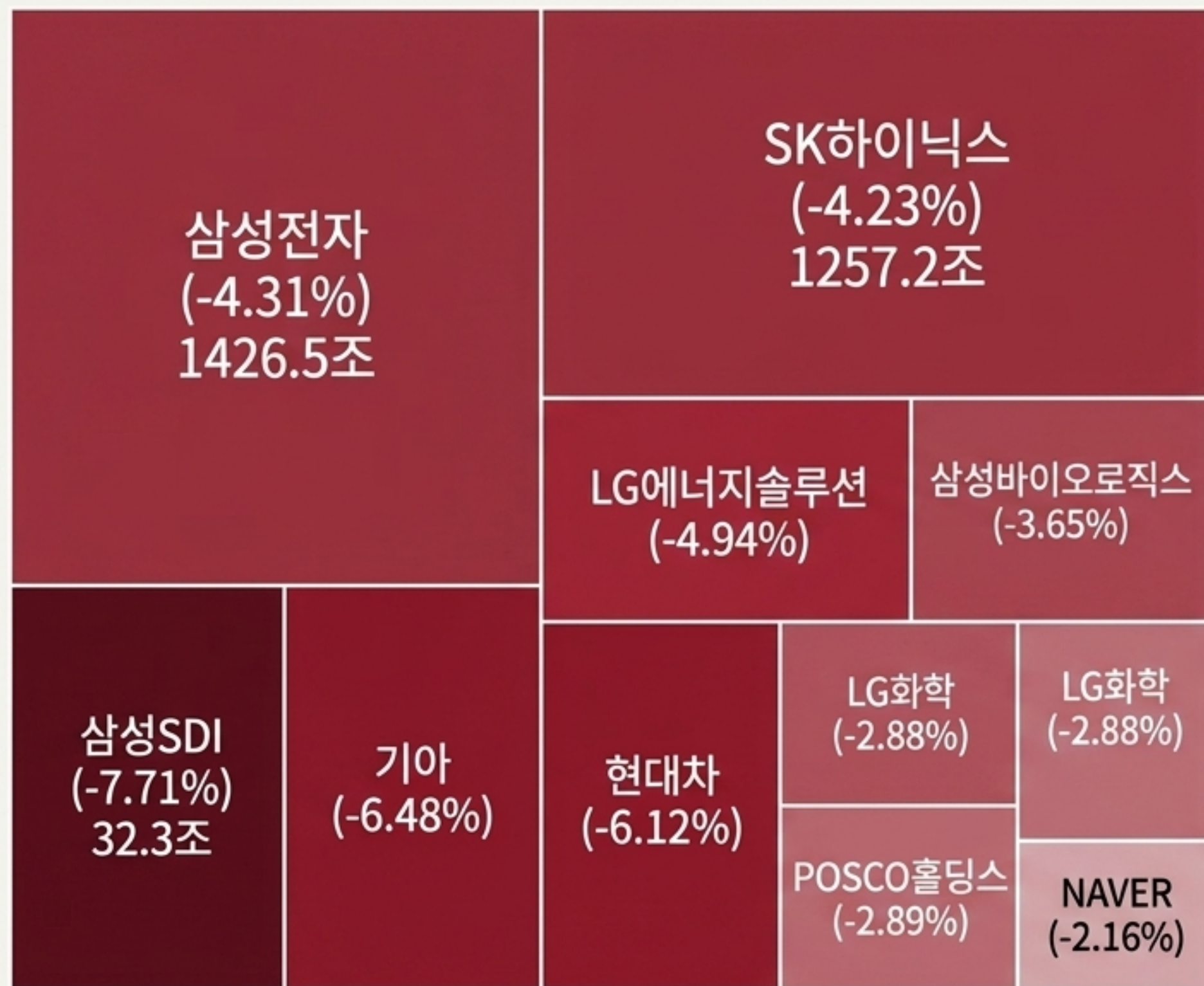
외국인: +112.9만 주 (순매수)

개인: +25.6만 주 (순매수)

기관: -146.9만 주 (순매도)

Insight: 다음 주요 지지선은 6,500선이나, 수급 공백 속 추가 하락 리스크 상존.

시가총액 Top 10 전멸: Tech, Battery & Auto의 무거운 낙폭



산업별 극단값 (1일 등락률)



The “Kimi Shock”: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도미노 현상

Phase 1: The Origin (중국)

중국 AI 규제 및 자체 AI 반도체 모델 ‘키미 K3’ 등장.

Phase 2: The Amplifier (미국)

미국 빅테크의 280조 원 규모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시험대 직면.

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성장 전망 불투명 가중
-> NASDAQ (-1.40%) 및 반도체주 약세 촉발.

Phase 3: The Crash (한국)

AI 투자의 바로미터인 K-반도체 밸류체인 직격탄.

코스피 변동성 사상 최고치 도달 및 글로벌 투자 생태계 교란.

Takeaway: 단순 개별 기업 악재가 아닌 미·중 AI 패권 경쟁과 실적 우려가 융합되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Tech 비중 축소를 강제하는 구조적 리스크.

S&P 500 | 7,457.69 | 0.00% (Flat)

NASDAQ | 25,520.24 | -1.4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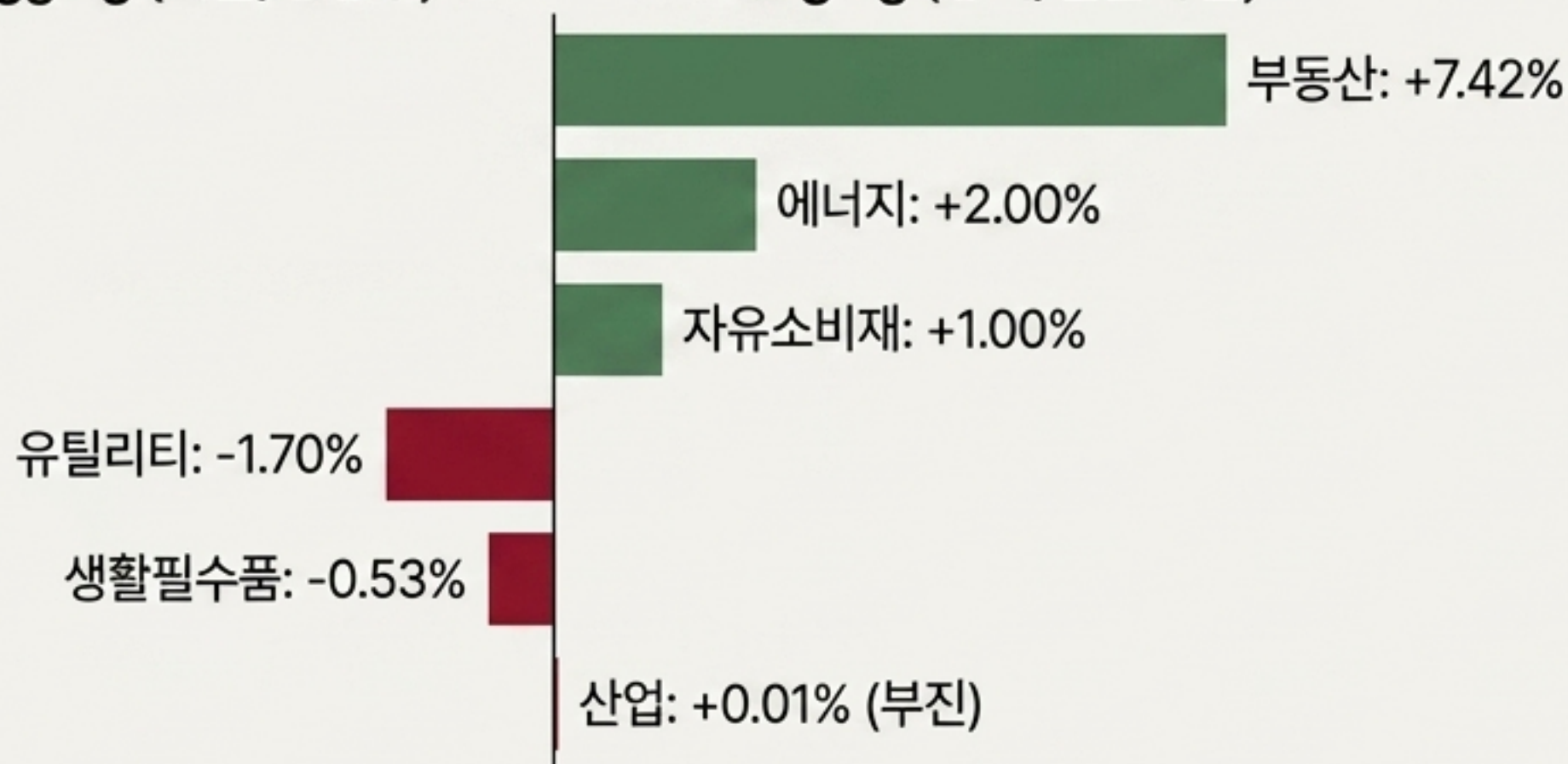
DOW JONES | 52,146.42 | -0.77%

Wall Street: 인플레이 둔화의 역설과 극단적 섹터 로테이션

1-day sector performance

Dragging (기술/성장주)

Surging (방어/실물자산)



Market News Highlights

- [실적 시즌]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 급격히 위축.
- [테마 강세] Boxabl 나스닥 상장 첫날 20% 급등 등, 대형 기술주에서 개별 테마주로 자금 이동 (예탁금 30조 증발 속 변동성 장세).

FICC Dashboard: 전면전 우려가 촉발한 극단적 인플레이 헷지

원유 (Energy) WTI: \$82.35 (+ \$2.62) 미국-이란 전면전 위기 고조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유가 90달러 돌파 압력.	전통 안전자산 (Safe Havens) 금(XAU): \$500 (+\$18) 극단적 안전자산 선호 심리. 단, 금가격 향후 하락 전망 혼재.
금리와 환율 (Yields & FX) 미 국채 10Y: 4.574% (+5bp) 달러인덱스: 0.5 (-0.32) 원·달러: 1,482.43원 (-5.30원) FOMC 매파 기조 유지로 금리 상승 압력 지속. 반면 유로 강세로 달러/원화는 상대적 강세.	신흥 위험자산 (Risk Assets) 비트코인: \$67,350 (+\$1,240) 현물 ETF 순유입 지속. 글로벌 증시 급락과 완벽히 디커플링된 대체 투자처로 부각.



Global Market Drivers: 아시아와 서구권의 완벽한 디커플링

	상승 요인 (Growth Drivers)	하락 요인 (Dragging Drivers)
아시아 태평양 (APAC)	지수: 상하이 (+0.45%), 선전 (+0.62%), ASX 200 (+0.52%) Driver: 자체 AI 기술 부각(키미 K3) 및 자원주 중심의 랠리.	지수: KOSPI (-4.46%), Nikkei (-1.12% (-1.12%, 휴장 여파 포함)) Driver: 엔화 약세 롤러코스터 및 K-반도체 글로벌 매물 폭탄 (극단적 쏠림 현상).
북미·유럽 (West)	(예외적 상승) STOXX 50 (+0.62%) - 방산주 호조 영향	지수: NASDAQ (-1.40%), DAX (-1.12%), FTSE 100 (-0.39%) Driver: 미국 기술주 실적 경계감, ECB 회의 전조 통화정책 리스크.

The Week Ahead: 변동성을 제어할 다음 분기점 및 대응 전략

Tesla (TSLA) & Alphabet (GOOGL) 실적 발표.

7/22 (수)

Insight: 빅테크의 실질적인 'AI 투자 수익성' 증명 여부가
현재 나스닥 및 한국 반도체/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결정지을 최우선 이벤트.



[Equities] 방어 포지션 구축

코스피 6,500선 이탈 리스크 상존.
고베타 기술주 비중 축소 및
방어형 ETF 검토 필요.



[Commodities] 인플레이션 헷지

미국-이란 분쟁 장기화 및
WTI 상승 모멘텀 지속 가능성.
원자재 선물(에너지 중심) 포지션 유지.



[Flows] 수급 모니터링

146.9만 주를 던진 '기관'의 매도세 진정
및 외국인 순매수 지속(현재 112.9만 주)
여부가 국내 증시 반등의 선행 조건.